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월 6일

CUOMO 주지사, 뉴욕의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20억 달러의 세금 경감 제공 계획을 발표하다

뉴욕주 세정이 10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서 20억 달러의 재정 흑자로 돌아서다

세금 감면 조치 패키지로 세금 절감과 소상공인 유치를 통해 경제 기회 증대를 계속 추진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경제 기회를 증대하고 소상공인 유치 및 성장을 위해 2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경감 건의 내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의 책임 있는 주 재정운영 덕분에 뉴욕은 10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서 20억 달러의 예상 재정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의 건의는 이러한 재정 흑자가 있기에 가능했으며, 뉴욕이 주 소상공인과 가정을 보다 살만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다음 주요 단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뉴욕의 세금 및 정부 지출 증가를 제한하고 1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20억 달러의 재정 흑자로 바꾸는 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건의는 뉴욕주 최초의 재산세 상하한선 마련, 60년만에 최저 중산층 소득세율 달성, 세금 추가 감면 및 소상공인 유치로 경제 기회 증대를 포함한 이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의안으로 뉴욕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일자리를 유치하며, 경제 성장 및 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조세개혁및공정위원회(Tax Reform and Fairness Commission)와 조세감면위원회(Tax Relief Commission)의 권고사항에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의 제정을 위해 입법부와 협조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오전 본 건의안에 대한 주지사의 발표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현재의 예상에 따르면 지출 증가가 연간 2%를 유지하는 경우 뉴욕주는 FY 2016-17까지 약 20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 흑자 예상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억 달러의 세금 감면 조치 패키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안은 뉴욕주 조세개혁및공정위원회 및 조세감면위원회의 노고로 나왔습니다. 20억 달러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비용은 세금 징수 간소화로 상쇄되며, 이는 감사 방식 개선을 통해 세입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Korean

Cuomo 주지사의 건의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재산세 2년 동결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뉴욕의 부동산세는 평균 거주비 5,040 달러로 미국 최고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상위 4개 카운티 중간 세금고지서 중 3개가 뉴욕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뉴욕은 주민들이 세 곳의 일반 목적 지방정부에서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10개 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뉴욕이 10,500개에 육박하는 개별 형태의 지방정부를 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중복 또는 반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으로 인해 2년 동안 재산세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첫 해에는 뉴욕주가 2%의 재산세 상하한도 내에 해당하는 관할 지역 거주 주택소유자에게 세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에는 뉴욕주가 재산세 상하한도 내에 거하면서 공동 서비스 또는 행정 통합 계획 이행에 동의하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세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결 조치는 재산세 상하한도가 없는 뉴욕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완전히 이행이 되면, 이 조세감면 제안은 280만명에 이르는 주택소유자들에게 평균 약 350 달러의 보조금과 함께 1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게 됩니다..

재산세 “공제제도”

재산세 공제제도 건의에 따라 190만명의 저소득 및 중소득 납세자들은 소득세율을 초과하는 소득과 관련해 효과적인 부동산 세율을 내게 됩니다. 이들 개인과 가정을 돕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납세자들의 지급 능력을 바탕으로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최고 2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각 가정이 여기에 속하며, 평균 보조금 약 500 달러와 함께 보조금은 개인 소득세에 대한 환급가능 세액 공제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 제공되지만, 재산세 상하한도를 고수하는 관할지역 내 거주자들에 한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완전한 도입이 이뤄질 경우 세금 감면액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세입자 세금 공제

뉴욕주에는 임대 가구가 330만 개가 됩니다. 829,000여명의 저소득 세입자는 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수 천명의 중간 소득자도 이와 유사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가족 수에 따라 증가하는 환급가능 개인 소득세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세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으로 260만명의 세입자에게 4억여 달러의 세금 공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상속세 개혁

뉴욕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15개 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현재의 상속세 수준은 몹시 개혁이 절실합니다. 연방정부는 처음 525만 달러에 달하는 개인 재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뉴욕은

100만 달러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를 떠나려 하는 뉴욕의 노인들에 주는 이러한 불편한 인센티브를 종식시키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 상속세 한도를 525만 달러로 증액하고 최고 세율을 4년 동안 10퍼센트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9년 시작되는 뉴욕주 상속세 감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맞춘 연방 면제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전 재산의 90%를 세금 면제해주고, 공정성을 회복하고, 뉴욕을 떠나려 하는 중산층 노인들과 부유한 뉴욕 주민들에 주는 인센티브가 없어질 것입니다.

영업세 삭감과 사업체에 대해 더욱 공정한 대우 시행

뉴욕의 회사 법인영업세는 매우 진부한 것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인해 해결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상황하고 복잡한 감사 과정을 낳고 있습니다. 조세 구조를 간소화하고 사업체를 돕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은행세를 회사 법인영업세에 통합하고 세율을 1968년 이후로 가장 낮은 6.5%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진행된다면 법인세 구조가 현대화되어 21세기 재무서비스 부문을 반영하고, 준수를 간소화하며 금융 기업들의 뉴욕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줄 것입니다. 이번 건의 사항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뉴욕에서 활동하는 사업체에 연간 3억4,60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입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

영업 활동 비용이 낮춰진다면 회사들이 뉴욕에 영업부를 마련하기에 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Upstate와 뉴욕시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기존의 제조업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제조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회사의 연간 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해 환급 가능한 세액을 공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공제로 제조업 부문에서 1억3,60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입니다.

Upstate 지역 제조업체에 세율 제거

Upstate 지역의 제조업 발전을 고취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Upstate 지역 제조업체에게 법인세율을 없애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로 Upstate 지역 제조업체에게 2,500만 달러의 추가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하자는 제안을 보완해줄 것입니다.

18-A 초과 비용에 대한 단계적 폐지 가속화

각 가정과 에너지 집약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산업계 고객을 상대로 상업용 전기, 가스, 수돗물 및 증기 사용 청구서에 부과하는 Temporary Utility Assessment(18-A)에서 2%를 즉시 없애고 나머지 고객에게는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일부 에너지 비용을 내고 있지만, 이 추가 요금은 어려움에 처한 각 가정과 회사에게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폐지가 이뤄지면 사업체와 주민들이 향후 3년 동안 6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 간소화

Cuomo 주지사는 성가신 조항을 없애기 위해 세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들 중 상당수는 뉴욕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개인소득세 최저 세금 부가, 권투 및 레슬링 행사 세금, 농협 관련 세금, 주식양도세가 포함되는 데, 이는 실제로 제로 세율로 징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개인소득세 환급 신청을 위한 수입 한도를 4,000 달러에서 납세자들의 평균 공제액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270,000명의 납세자들이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 간소화 활동에는 조세 전문가가 마련한 e-Filed 환급을 위한 서명 요건의 수정과 유동성 및 자영업자의 개인소득세 신청 방식 정렬이 포함됩니다.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다

뉴욕은 오랜 동안 높은 세금과 대기업에 적대적인 주로 악명을 떨친 곳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 이후 주 지출 증가 제한, 재산세 상하한도 제정, 60년 만에 중산층 최소 세율 단행, 700,000여개 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MTA 지불 급여세 폐지, 자녀 세금 혜택 마련, 소기업 및 제조업에 대해 세금 감면,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개혁, 새로운 START-UP NY 면세 구역 설정을 포함해 줄곧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효과적인 예산 운영과 2% 지출 한도 벤치마크 고수가 결합하여 뉴욕주의 재무 상황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